“코호트 격리된 병원 정상화 최선 다하겠다”

안영근 신임 전남대병원장

“원내 감염으로 진료 차질 지역민께 죄송” 유감 표명
다병원 체제 정립·연구중심병원 도약 등 적극 추진

“지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직원들이 행복한 스마트 병원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3일 전남대병원 제33대 병원장에 임명된 안영근 순환기내과 교수는 향후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안 신임 병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원내 감염으로 인한 병원 1동이 코호트 격리되는 초비상 상황에 따라 진료과실장 회의를 열고서 비상대책을 논의하는 등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안 병원장은 “병원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병원장의 임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무엇보다 코호트 격리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 지역민들에게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하나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고 각오를 다졌다.

또 안 병원장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보다 완벽한 방역지침을 수행하지 못해 진료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지역민 여러분께 가슴 깊이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며 “응급환자들의 경우 다른 병원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병원들과 원활한 협조를 유지해 갈 것이며, 광주시 등 방역당국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병원장은 앞으로 병원운영 방침에 대해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직원 모두가 화이부동(和而不同) 정신으로 서로 배려하는 병원문화를 이뤄 신뢰받는 병원·감동 주는 병원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주요 운영 계획으로는 ▲전국 최대규모의 다병원 체제 진료모델 정립 ▲글로벌 의료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의생명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 도약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공공의료 전개 ▲혁신성장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병원 운영 방침 등을 내세웠다.

또한 ‘고객이 신뢰하는, 직원이 행복해하는 스마트 병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발전적 조화를 이뤄 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국내 심장학 명의로 꼽히는 안 병원장은 1989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8년 전남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94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1998년 임상교수로 부임한 후,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년 동안 유전자치료를 전공으로 연수했다.

이후 전남대 의과대학·병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내 최고수준의 관상동맥 중재술을 지닌 명의(名醫)로 존경을 받은 안 병원장은 세포재생치료사업단 구축, 국내 최대 규모의 환자등록사업인 심근경색증 등록연구사업 등을 주도하며 국내 심장학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했고, 전남대 순환기내과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했다.

또한 지난 2003년부터 관상동맥중재술 라이브 심포지엄, 2007년부터 광주·보스턴 국제심장학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국내 의료수준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에도 앞장섰다.

이 같은 공로에 힘입어 안 병원장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2015년), 대한의학한림원 정회원(2018년) 등 의학자로서 최고의 권위와 명예를 얻었다. 그는 지금까지 학술논문 1천29편(국외 596편·국내 433편), 저서 34편, 특허 12건(국제특허 5건·국내특허 7건) 등의 연구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뛰어난 의술에다 ‘마음 따뜻한 의사’로 환자들의 존경을 받은 안 병원장은 특유의 리더십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전남대병원기획조정실장, 진료지원실장, 권역심뇌혈관센터장, 내과과장등 주요 병원 보직을 거치며 뛰어난 기획력을 발휘해 전남대병원 위상제고에 기여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학술이사, 한국혈전지혈학회 학술이사, 대한심장학회 심근경색연구회 학술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혈전지혈학회 이사장, 대한심장학회 간행이사, 심장학회 기초과학연구회 회장, Circulation Reports 국제편집위원 등을 맡고 있다. /오승지 기자

광주여대, 호남·제주권 릴레이 탐방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대학일자리센터는 지난 17일-18일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호남·제주권 릴레이 탐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역 간 우수기업 및 일자리정보 교류를 통해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이번 탐방은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광주테크노파크, ㈜캠틱종합기술원, ㈜제주테크노파크와 협업으로 운영했으며 호남·제주권 학생 27명이 참여했다.

제주지역소재 우수기업인 카멜리아힐, 제주맥주, ㈜제주사랑농수산, 용암해수센터에 방문하였으며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특강도 함께 진행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상희 대학일자리센터장은 “코로나 19방역을 준수하며 프로그램을 진행, 제주권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호남·제주권 청년들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취업정보제공 및 지역기업의 향상 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서부중등학생의회 2차 회의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학생의회실에서 서부중등학생의회 당연직 의원 59명과 개방형 의원 6명을 대상으로 ‘2020 서부중등학생의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서부중등학생의회 의장단의 사전 안건 협의회를 거쳐 ‘기후환경 재난 대응 협의’를 제2회 학생의회 심의 안건으로 채택해 진행됐다.

서부중등학생의회 의원들은 최근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폭설, 한파, 산불과 같은 환경 재난 및 기후 난민 발생 등 지구 전체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음에 공감했다. 이에 대한 경각심을 사회 전체에 일깨우고, ‘기후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학교 내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열띤 토의 토론을 펼쳤다.

그 결과 ‘교실 내 전등 및 TV 끄기’, ‘기후 변화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 개최’,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실시’가 실천 계획으로 채택됐다. 각 학교에서는 채택된 내용을 실천하고 그 결과를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중학교 의회(서부)를 통해 공유하기로 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학생의회에서 도출한 회의 결과와 실천 과제에 대해 학교교육 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권범 기자

남구의회, 지속가능발전 전략 모색 전문가 초청 간담회

광주 남구의회는 23일 “최근 남구의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관련해 남구의회 차원에서 과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해 전문가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에 재임하고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병완 교수를 초청해 남구의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과제를 중심으로 외국과 우리나라의 이행 사례를 살펴보고 남구에 적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등 전문적인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발전과 그린뉴딜을 연계해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도 제시했다.

남구의회 의원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남구가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사례연구와 더불어 발전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수 기자

광주보훈청-무공수훈자회 광주지부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위문품 전달

광주지방보훈청과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광주지부는 최근 보훈 봉사단을 꾸려 사회복지시설 용진육아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라면, 생필품 세트 등 1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전쟁고아 양육을 위해 설립된 용진육아원을 찾은 무공수훈자회와 보훈청 자원봉사 회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봉사활동을 펼치지 못해 아쉬웠는데 의미 있는 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위문품을 전달하니 보람되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수 기자

담양 수북면 지사협,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담양군 수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전채우)는 최근 관내 무의탁 독거노인 7명을 대상으로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자녀가 없거나 결혼을 하지 않아 매년 홀로 쓸쓸히 생신을 보내는 독거노인을 위로하고 지역 소속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했으며 생신상과 함께 생신꾸러미(패딩 및 내의 등)를 전달했다.

전채우 수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은 “수북면의 모든 주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영기 수북면장은 “1년 중 가장 뜻깊은 날을 쓸쓸히 보내지 않고 함께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수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월 제4기 협의체가 출범하면서 100℃ 사랑의 온도나눔(쿠키백), 보행보조기(실버카)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반사스티커 부착, 치매 고위험 독거노인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며 지역 내 민간이 주체가 되는 복지 체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

조선이공대, ‘총장님과 함께 하는 톡 콘서트’ 마무리

조선이공대 조순계 총장이 대학 1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강의를 진행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조선이공대는 지난달 26일 프랜차이즈창업경영과 특강으로 시작된 ‘총장님과 함께 하는 톡(talk)콘서트’가 지난 18일 실내건축디자인과를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각 학과별로 진행됐으며, 20개 학과 1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 총장의 ‘놀라운 조이공, Catch your dream’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특강은 조선이공대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젊은이들의 꿈과 도전에 관한 내용 위주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또한 ‘톡(talk) 콘서트’라는 타이틀에 맞게 재학생들과 조순계 총장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조 총장은 “모두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코로나19로 위축돼 있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우리대학 학생들이 꿈과 땀으로 스스로 미래가치를 키워나가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 총장은 지난해에도 4-5월 두 달간 ‘절박함으로 도전하라’라는 주제로 ‘총장님과 함께 하는 톡(talk)콘서트’를 20개 학과 1학년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최권범 기자

동강대, 소믈리에 자격시험 17명 합격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세계 최고의 소믈리에 협회가 인정한 자격증 시험에 대거 합격하며 미래 호텔리어의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

동강대 호텔항공관광과(학과장 김관용)는 최근 ㈔한국 국제소믈리에 협회에서 주관한 ‘와인 소믈리에 인터 미니에이트’시험에서 1-2학년 17명이 합격했다고 23일 밝혔다.

합격생은 김기평 김수하 김연희 정준우 오승준(이상 2년), 주락현 김승준 김민수 김예랑 김하진 안수빈 이그리나 오민정 장유진 조유나 최하늘 하은빈(이상 1년) 등이다.

소믈리에는 와인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포도주를 관리하고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전문가다. 이번 시험은 세계 최고의 소믈리에 협회인 ASI(Association de la Sommellerie Internationale)가 인정한 자격증 테스트다.

필기시험을 거쳐 블라인드 테스트, 와인과 요리의 조합을 살피는 마리아주, 대고객 서비스 등의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정호 지도교수는 “호텔외식서비스에서 와인 문화의 비중이 커졌지만 지역 대학가에서 시스템화 된 전문 소믈리에 교육이 다소 아쉬웠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정한 이번 자격증 획득으로 호텔리어를 꿈꾸는 동강대 학생들의 실력이 한층 탄탄해졌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영암소방서, 영암초 119소년단 소방안전행사

영암소방서(서장 임동현)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영암초등학교 119소년단과 함께 소방안전행사를 개최했다.

영암소방서는 최근 이틀간 영암초등학교 119소년단(지도교사 최동혁)과 함께 친구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소방안전캠페인를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불나면 대피 먼저’와 화재 발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대피 상식에 대해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학생들은 화재예방 캠페인 종료 후 영암소방서 전문소방안전 강사로부터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소화기 사용요령, 학교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처방법 등을 교육받았다.

교육 완료 후 소년단 학생들이 교육 내용을 피드백해 직접 안전강사로서 친구들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전과는 다른 소방안전교육방식을 적용, 효과를 높였다.

영암초등학교는 지난 19일 소방청 주관 제20회 불조심 어린이 마당 평가에 지원, 화재예방관련 학습 내용을 영암군을 대표하여 평가받는 등 화재예방 선도 학교로 활동하고 있다.

임동현 영암소방서장은 “영암초등학교 119소년단의 화재 예방을 위한 활동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이봉영 기자

김순애 목포 하당동 새마을부녀회장, 김치 나눔 ‘훈훈’

김순애 목포시 하당동 새마을부녀회장의 행복나눔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김순애 회장은 최근 자비로 마련한 김치 25박스(싯가 100만원 상당)를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을 위해 전달, 따뜻한 마음과 나눔을 실천했다.

김순애 새마을부녀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를 잘 극복하고 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 하당동장은 “훈훈한 미담사례가 나눔문화 확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결혼

●박상보·이명숙씨 장남 용준군, 정동진(광주 벤틀리관광호텔 상무이사)·박영순씨 차녀 윤정양=28일(토) 오후 6시30분 드레스가든 4층 블리스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71-8, 02-512-1000, 010-2625-3990.